



2023

대한민국 - 유럽연합 무역 및 투자관계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epublic of Korea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인사말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대사

2022년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하며 우리 사회와 경제의 회복력이 시험대에 놓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략으로 인한 전쟁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놀랄만한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과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지지, 제재를 통한 대러 압박,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대한 나머지 국가들의 대응 지원으로 요약되는 트리플 전략을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간에 펼쳐지고 있는 치열한 전략적 경쟁의 영향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갈등 가운데 반도체 분야는 차기 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패권 경쟁의 여파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 않게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관계로 앞으로 핵심 원자재에 대한 접근 문제가 또다른 전 세계적인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는 우리 앞에 임박한 환경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넷제로(온실가스 순배출 0)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산업 지형을 급변시킬 것입니다. 향후 몇 십년에 걸쳐 우리는 이 시대 최대 규모의 산업 전환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 경제의 기초가 될 기술을 개발하는 자들이 가장 큰 경쟁우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많은 도전과제에도 불구하고, 한-EU 경제 관계는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 중입니다. 2011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은 여전히 양자 경제 관계에 있어 견고한 토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2022년 양자 상품 무역 규모는 1,320억 유로를 기록하며, 한국 전체 무역의 약 10%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해 EU는 한국의 3대 교역 파트너였으며, 한국은 일본 다음인 EU의 9대 교역 파트너로 인도 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양자 서비스 무역은 2021년 한-EU FTA가 발효한 2011년 대비 97.5% 급증하며 210억 유로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2021년에도 EU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잔액 기준으로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FDI 전체 잔액의 26.7%)를 했으며, 한국도 점차 EU의 중요한 투자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EU와 한국 사이에 중요한 의제들이 많습니다. 우선 한-EU 수교 60주년을 기념할 계획입니다. 또 5월에는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간에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한-EU간에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해 이제 이행 단계로 넘어가 디지털 무역을 포함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려고 합니다. 양측은 가까운 시일 내 녹색 파트너십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녹색 성장에 대한 양측의 강한 의지와 2030 목표를 비롯해 2050년 탄소순배출량 0 목표 달성을 위한 배가된 노력을 재확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엄청난 도전과제들을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다 개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 가치와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번영을 위협하는 것들에 단결하여 굳건히 맞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2023

대한민국 - 유럽연합 무역 및 투자관계

Contents

- 03 인사말
- 04 한-EU 통상 관계 개관
- 06 한-EU 상품 무역
- 10 한-EU 서비스 무역
- 14 한-EU 외국인직접투자

한-EU 통상 관계 개관

전 세계 상품 무역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세계 최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시장이자 수입시장이다¹⁾. EU는 80개국에서 1대 교역 파트너이며, 경제대국 가운데 무역이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U는 외국인투자자 및 해외투자자에 있어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EU는 여러 신흥국 및 선진국들과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며 국제무역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더욱 강화했다.

2021년 연간 성장률 5.3%를 기록한 EU 경제는 2022년에는 3.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계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2023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이 0.8%, 2024년에는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급원 다변화와 급격한 소비 위축이 지속되며, 가스 도매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 대비 크게 하락했다. EU 노동시장은 실업률이 2022년 말까지 역대 최저 수준인 6.1%를 기록하며 건실한 모습을 보여줬다. 경제신뢰지수는 개선되고 있지만, 2023년 초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가운데 통화 긴축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기업들의 활동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²⁾.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국 가운데 하나이다. 2021년 GDP³⁾ 1.81조 달러를 기록한 한국은 경제 규모 기준 세계 10위, 아시아에서는 4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무역은 GDP의 80%,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GDP의 42%를 차지했다⁴⁾. 2022년 기준, 한국은 59개 국가와 21개의 FTA를 체결했으며, 이 국가들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다⁵⁾.

한국은 기록적인 수출과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힘입어 2021년 4.0%의 인상적인 GDP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22년에는 2.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 경제는 2023년 1.7%, 2024년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⁶⁾. 2022년 5.1%를 기록한 소비자물가지수는 2023년에는 3~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⁷⁾. 연간 실업률은 2021년 3.7%에서 2022년에는 2.9%로 내려갔다. 2022년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으로 한국은 역대 최대인 478억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 한국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6,836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의 22.8%를 차지한 중국이 또다시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꼽혔다. 이어 미국(16.1%), EU(10.0%), 베트남(8.9%), 일본(4.5%), 홍콩(4.0%), 그리고 대만(3.8%)이 그 뒤를 따랐다. 2022년 한국의 수입액 또한 18.9% 증가해 7,314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21.1%), 미국(11.2%), EU(9.3%), 그리고 일본(7.5%)이었다⁸⁾.

2011년 7월 1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양자 무역 및 투자는 크게 확대되었다. 2022년 한-EU 상품 무역은 전년 대비 23%, FTA가 발효된 2011년 대비 110% 상승한 1,318억 유로를 기록했다. 중국과 미국에 이어 EU는 한국의 3대 상품 무역 파트너 자리를 지켰다.

2021년 양자 상품 무역도 2011년 대비 97.5% 크게 증가한 214억 유로를 기록했다(유럽연합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최신 자료 기준). 2021년 (한국은행에서 제공되는 최신 자료 기준), EU 27개 회원국들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총잔액은 일본(22.4%)과 미국(14.6%)보다 많은 26.7%로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유지했다⁹⁾.

한-EU FTA는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확대 및 접근성 강화 뿐 아니라 투자를 위한 안정적인 예측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양자 무역 및 투자 관계를 크게 강화 및 심화시켰다.

1) 출처: 무역총국, 유럽집행위원회

2) 출처: 2023년 2월 13일 발간된 EU 2023 동계 경제 전망

3) 출처: 한국은행(2021)

4) 출처: 세계은행(2021)

5)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6) 출처: 2023년 1월 31일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7) 출처: 한국은행

8) 출처: 한국무역협회(KITA)

9) 출처: 한국은행(잠정치)

1. 한-EU 상품 무역

한-EU FTA는 EU가 체결한 "차세대 FTA(new-generation FTAs)" 가운데 하나로 EU가 맺은 무역협정 가운데 이례의 여지없이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된 포괄적인 협정이다. 한-EU FTA는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EU-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EU-싱가포르 FTA 및 EU-베트남 FTA를 포함해 EU가 그 후 체결한 FTA에 있어 기준이 되었다.

한-EU FTA는 2011년 7월 발효된 이래 굉장한 성과를 거뒀다. 무역 자유화 덕분에 한국과 EU간 무역 흐름은 크게 증대되었고, 기업들의 경쟁력이 제고되었으며, 한국과 EU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저렴한 가격의 상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다.

양자 상품 무역은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7.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럽연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양자 상품 무역은 2022년 전년대비 23% 상승한 1,318억 유로를 달성했다. 같은 해 EU의 대한민국 수입은 717억 유로(전년 대비 29.2% 증가), 대한민국 수출은 601억 유로(전년 대비 16% 증가)를 기록했다.

2022년 한국은 EU의 8대 수입국(EU 전체 수입의 2.4%)이었으며, 8대 수출국(EU 전체 수출의 2.4%)이었다. 같은 해, EU는 한국의 3대 수입시장(한국 전체 수입의 9.3%)이자 3대 수출시장(한국 전체 수출의 10%)을 기록했다.

2011년 한-EU FTA 발효 이후, EU의 대한민국 수입 및 수출은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2022년 양자 상품 무역은 2011년 대비 110% 성장했으며, 동기간 EU의 대한민국 수입은 117%, 대한민국 수출은 103%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무역 수지를 살펴보면, EU의 오랜 대한민국 무역 적자가 2013년과 2016년 사이에 흑자로 전환되었다. 2017년, EU의 경제 회복 가운데 EU의 대한민국 수입은 전년대비 27%나 증가하며 한국은 다시 EU 무역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 흑자 기조는 2019년까지 지속되었다. 2020년, EU 27개 회원국은 10억 9200만 유로에 달하는 대한민국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1년 EU 27개 회원국은 또다시 36억 6400만 유로에 달하는 대한민국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그리고 유럽연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EU는 2022년 116억 유로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대한민국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2011-2022 EU 27개 회원국 대한민국 상품 무역 (단위: 1백만 유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EU 27개 회원국의 대한민국 수입											
33,095	33,310	31,620	33,114	35,576	34,648	44,036	46,056	47,448	44,218	55,498	71,709
EU 27개 회원국의 대한민국 수출											
29,684	32,300	34,334	38,126	41,383	38,801	43,508	43,749	43,369	45,310	51,835	60,120
EU 27개 회원국의 대한민국 무역 수지											
-3,412	-1,010	2,714	5,012	5,807	4,153	-527	-2,307	-4,079	1,092	-3,664	-11,589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

2022 EU 27개 회원국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상품 무역 규모 (단위: 1백만 유로)

	전체 무역 규모	백만 유로	비중 (%)	EU 수입	백만 유로	비중 (%)	EU 수출	백만 유로	비중 (%)
	EU 27개 회원국 외	5,550,392	100.0	EU 27개 회원국 외	2,993,091	100.0	EU 27개 회원국 외	2,557,302	100.0
1	미국	867,738	15.6	중국	626,006	20.9	미국	509,320	19.9
2	중국	856,331	15.4	미국	358,418	12.0	영국	313,898	12.3
3	영국	522,420	9.4	영국	208,522	7.0	중국	230,325	9.0
4	스위스	333,212	6.0	러시아	203,378	6.8	스위스	188,027	7.4
5	러시아	258,560	4.7	노르웨이	160,726	5.4	튀르키예	99,586	3.9
6	노르웨이	228,451	4.1	스위스	145,186	4.9	일본	71,576	2.8
7	튀르키예	198,138	3.6	튀르키예	98,552	3.3	노르웨이	67,725	2.6
8	일본	141,257	2.5	한국	71,709	2.4	한국	60,120	2.4
9	한국	131,829	2.4	일본	69,681	2.3	러시아	55,182	2.2
10	인도	115,100	2.1	인도	67,441	2.3	멕시코	49,758	1.9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

2022 한국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상품 무역 규모 (단위: 1백만 달러)

	전체 무역 규모	백만 달러	비중 (%)	한국 수입	백만 달러	비중 (%)	한국 수출	백만 달러	비중 (%)
	전 세계	1,414,955	100.0	전 세계	731,370	100.0	전 세계	683,585	100.0
1	중국	310,365	21.9	중국	154,576	21.1	중국	155,789	22.8
2	미국	191,551	13.5	미국	81,785	11.2	미국	109,766	16.1
3	EU 27개 회원국	136,263	9.6	EU 27개 회원국	68,192	9.3	EU 27개 회원국	68,071	10.0
4	베트남	87,689	6.2	일본	54,712	7.5	베트남	60,964	8.9
5	일본	85,318	6.0	호주	44,929	6.1	일본	30,606	4.5
6	호주	63,682	4.5	사우디아라비아	41,640	5.7	홍콩	27,651	4.0
7	대만	54,473	3.8	대만	28,275	3.9	대만	26,198	3.8
8	사우디아라비아	46,505	3.3	베트남	26,725	3.7	싱가포르	20,205	3.0
9	싱가포르	30,553	2.2	카타르	16,567	2.3	인도	18,870	2.8
10	홍콩	29,529	2.1	인도네시아	15,735	2.2	호주	18,753	2.7

출처: 한국무역협회

EU와 한국간 양자 무역은 기계장비(32.8%), 운송장비(18.2%), 그리고 화학(16.2%)을 비롯해 2022년 전체 양자 상품 무역의 96%를 차지한 산업 분야에 여전히 고도로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0년간 농산물 제품에 대한 양자 교역도 점진적으로 증대되어 2022년 전체 양자 무역의 3.8%를 차지했다. EU의 대한민국 전체 수출 가운데, 농산물 제품 비중은 2012년 4.9%에서 2022년 7.7%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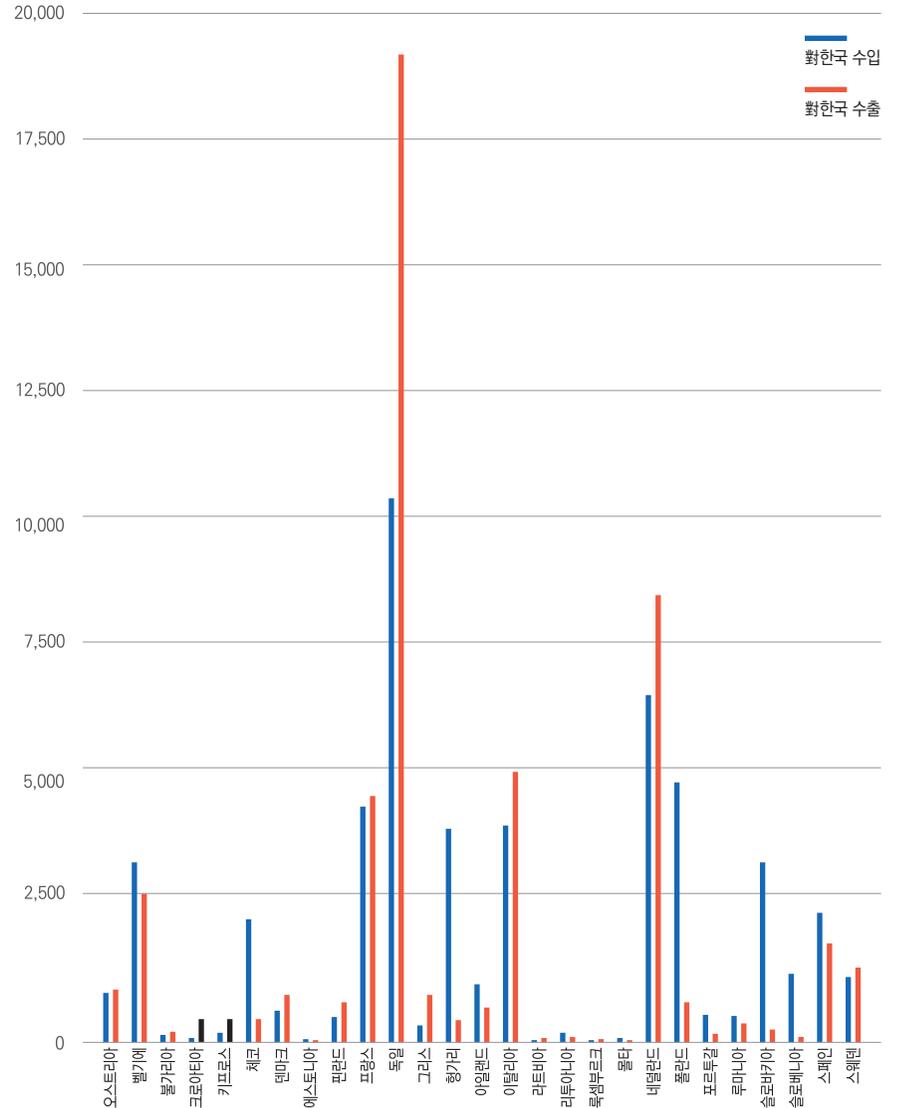
2012-2023 EU 27개 회원국 품목별 상품 무역 (단위: 1백만 유로, %)

품목	2021	2022	EU 27개 회원국 對한국 무역에서의 품목별 비중 (2012-2017-2022)								
			EU 27개 회원국 수입 비중			EU 27개 회원국 수출 비중			EU 27개 회원국 수출입 비중		
전체 상품	-3,664	-11,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산물 제품 (WTO 농산물 협정에 정의하의 농산물 제품)	3,670	4,258	0.2%	0.4%	0.5%	4.9%	6.1%	7.7%	2.5%	3.2%	3.8%
비농산물 제품	-7,333	-15,848	99.8%	99.6%	99.5%	95.1%	93.9%	92.3%	97.5%	96.8%	96.2%
수산물	-10	14	0.2%	0.3%	0.2%	0.1%	0.3%	0.3%	0.2%	0.3%	0.3%
공산품	-7,324	-15,861	99.5%	99.3%	99.3%	95.0%	93.6%	92.0%	97.3%	96.5%	96.0%
HS 분류	EU의 對한국 무역 수치	EU 27개 회원국 수입 비중	EU 27개 회원국 수출 비중			EU 27개 회원국 수출입 비중					
① 산 동물: 동물 제품	1,469	1,845	0.2%	0.3%	0.2%	1.9%	2.8%	3.3%	1.0%	1.5%	1.6%
② 채소 제품	608	526	0.1%	0.1%	0.1%	0.7%	0.6%	1.0%	0.4%	0.3%	0.5%
③ 동식물성 유지	189	261	0.0%	0.0%	0.0%	0.3%	0.3%	0.4%	0.1%	0.1%	0.2%
④ 식품, 음료, 담배	1,236	1,429	0.2%	0.3%	0.4%	1.8%	2.4%	2.9%	1.0%	1.4%	1.6%
⑤ 광물성 제품	76	-1,965	4.3%	2.3%	4.3%	2.8%	1.8%	1.8%	3.6%	2.0%	3.2%
⑥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 제품	473	-817	3.0%	12.3%	15.5%	14.4%	13.4%	17.1%	8.6%	12.9%	16.2%
⑦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 제품	-3,556	-5,164	7.0%	9.0%	9.7%	3.3%	3.5%	3.0%	5.1%	6.3%	6.6%
⑧ 원피, 가죽, 마구	1,302	1,647	0.2%	0.2%	0.1%	2.0%	2.1%	2.8%	1.1%	1.1%	1.3%
⑨ 목재, 목탄, 코르크 및 관련 제품	355	320	0.0%	0.0%	0.0%	0.4%	0.7%	0.5%	0.2%	0.4%	0.3%
⑩ 펄프, 종이 및 판지	265	245	0.3%	0.2%	0.2%	0.9%	0.8%	0.6%	0.6%	0.5%	0.4%
⑪ 직물 및 기타 섬유제품	459	628	2.7%	2.4%	1.8%	2.1%	2.4%	3.2%	2.4%	2.4%	2.4%
⑫ 신발, 모자 및 기타 모자류	343	403	0.1%	0.1%	0.1%	0.4%	0.7%	0.8%	0.2%	0.4%	0.4%
⑬ 석제품, 유리 및 세라믹 제품	301	344	0.5%	0.4%	0.4%	0.9%	1.0%	1.0%	0.7%	0.7%	0.7%
⑭ 진주, 귀금속 및 관련 제품	810	582	0.3%	0.2%	0.5%	0.5%	0.5%	1.5%	0.4%	0.4%	1.0%
⑮ 비금속 및 관련 제품	-2,870	-4,914	7.4%	9.3%	9.8%	8.1%	4.3%	3.5%	7.7%	6.8%	6.9%
⑯ 기계장비	-4,227	-7,576	36.7%	34.4%	35.4%	36.5%	32.1%	29.7%	36.6%	33.2%	32.8%
⑰ 운송장비	-2,398	-1,411	26.4%	23.9%	17.7%	13.3%	19.8%	18.8%	20.0%	21.8%	18.2%
⑱ 광학 및 사진 기기 등	1,597	1,806	9.0%	3.4%	2.5%	6.3%	7.7%	6.0%	7.7%	5.5%	4.1%
⑲ 무기 및 탄약	-46	-184	0.0%	0.1%	0.3%	0.0%	0.0%	0.0%	0.0%	0.0%	0.1%
⑳ 기타 제조 제품	336	372	0.7%	0.6%	0.3%	1.0%	1.1%	1.0%	0.9%	0.8%	0.6%
㉑ 예술품 및 골동품	38	71	0.0%	0.0%	0.0%	0.0%	0.1%	0.1%	0.0%	0.0%	0.1%
기타	-423	-39	0.8%	0.6%	0.8%	2.4%	2.0%	0.9%	1.6%	1.3%	0.9%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

2021년,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독일이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였으며(유럽연합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최신 자료 기준), 양국간 교역 규모는 EU 27개 회원국의 對한국 전체 교역의 27.9%를 차지했다. 네덜란드(14.5%), 이탈리아(8.9%), 프랑스(8.8%) 및 헝가리(4.3%)가 그 뒤를 따랐다.

2021 EU 27개 회원국별 한국과의 양자 교역 (단위: 1백만 유로)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 (2023년 3월 한-EU 27개 회원국 양자 교역 최신 통계)

2. 한-EU 서비스 무역

서비스 분야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 경제 분야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EU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는 EU 전체 GDP의 %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EU 전체 일자리의 %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서비스 교역에서 EU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2021년(유럽연합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최신 자료 기준), EU의 역외 지역과의 서비스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2조 120억 유로를 기록했다¹⁰⁾.

한-EU FTA는 서비스 교역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양자간 상품 무역 및 투자 증대로 전문적인 국경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며, 서비스 교역이 확대되었다. 양자간 서비스 수출에서 목격되고 있는 인상적인 성장률은 서비스 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문화가 경제적 이익 창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규모의 경제와 혁신은 양측의 서비스 교역 확대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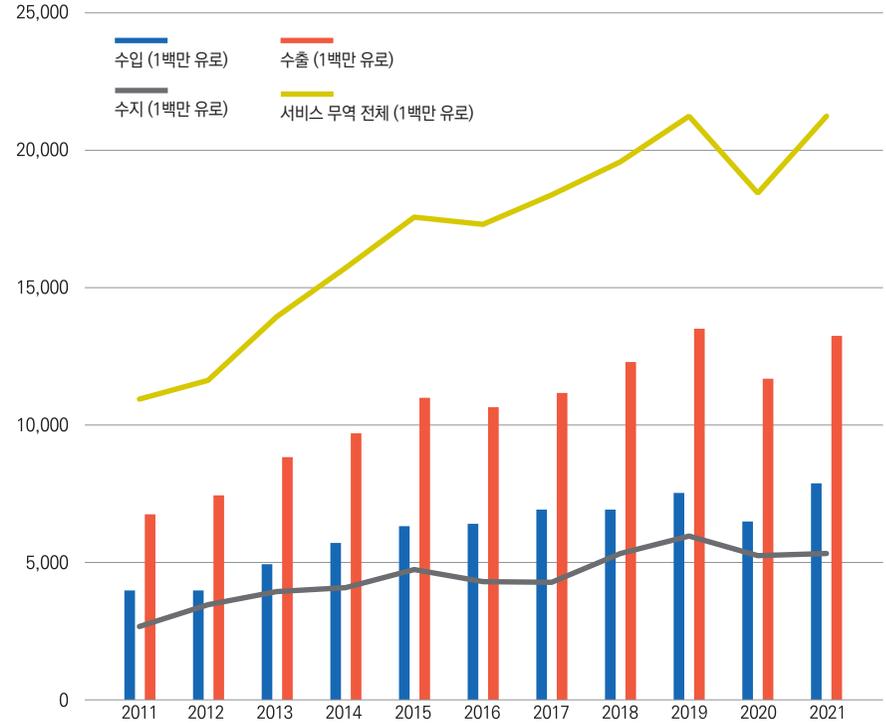
2021년 양자간 서비스 교역은 2011년 대비 97.5%라는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동기간 EU의 대한민국 서비스 수출은 96.9%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EU의 대한민국 수입 또한 98.4%로 크게 증가했다. 동기간 EU의 대한민국 수출은 EU의 역외 지역과의 서비스 교역(79.4% 증가)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또 괄목할 만한 점은 동기간 EU의 대한민국 수출이 7%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2021년에는 EU의 대한민국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3%와 22% 상승했다. 2021년 EU의 대한민국 서비스 분야 무역 흑자는 54억 유로를 기록했다.

향후 몇 년간 한국과 EU가 서비스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점차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며, 무역 자유화, 규제 완화 및 규정 재정립 과정을 통해 시장 상황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10)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



2011-2021 EU 27개 회원국-한국 서비스 교역 규모 (단위: 1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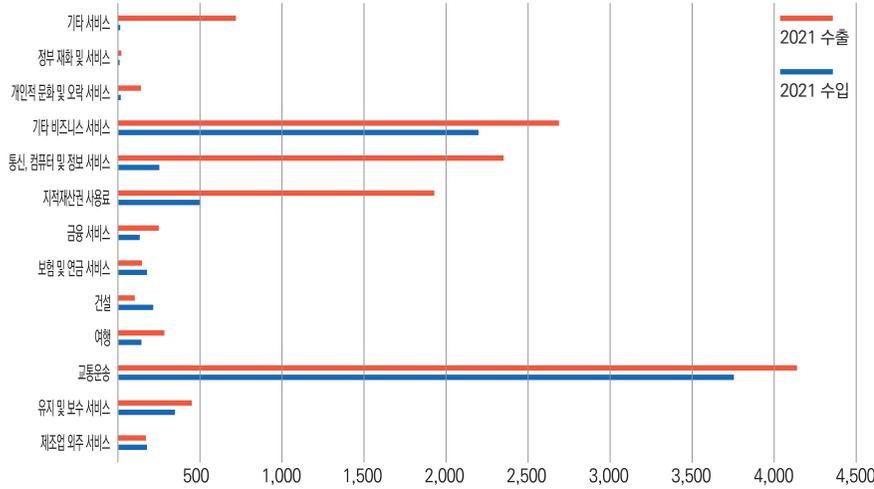


연도	1백만 유로				전년대비 성장률 (%)			
	수입	수출	수지	전체	수입	수출	수지	전체
2011	4,013	6,804	2,791	10,818	-9%	4%	30%	-1%
2012	4,009	7,552	3,543	11,562	0%	11%	27%	7%
2013	4,962	8,888	3,925	13,850	24%	18%	11%	20%
2014	5,775	9,854	4,079	15,629	16%	11%	4%	13%
2015	6,352	11,157	4,804	17,509	10%	13%	18%	12%
2016	6,502	10,780	4,278	17,282	2%	-3%	-11%	-1%
2017	7,027	11,320	4,294	18,347	8%	5%	0%	6%
2018	7,020	12,421	5,401	19,441	0%	10%	26%	6%
2019	7,650	13,652	6,002	21,301	9%	10%	11%	10%
2020	6,516	11,823	5,307	18,339	-15%	-13%	-12%	-14%
2021	7,963	13,398	5,435	21,361	22%	13%	2%	16%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

2021년 한-EU 서비스 무역은 교통운송(37.0%), 통신·컴퓨터 및 정보서비스(12.2%), 그리고 로열티 및 라이선스로 (11.4%)와 같은 몇 개 분야에 집중되어 이뤄졌다.

2017-2021 분야별 EU-한국 서비스 무역 (단위: 1백만 유로)



2017-2021 분야별 EU-한국 서비스 무역 (단위: 1백만 유로)

서비스	2017-2021 수입					2017-2021 수출					2017-2021 수지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Total	7,027	7,020	7,650	6,516	7,963	11,320	12,421	13,652	11,823	13,398	4,294	5,401	6,002	5,307	5,435
제조업 외주 서비스	118	153	116	128	178	197	211	298	238	171	78	58	182	110	-6
유지 및 보수 서비스	227	259	290	302	350	240	330	328	333	450	14	71	38	31	100
교통운송	2,249	2,465	2,458	2,674	3,756	2,674	2,639	2,833	2,414	4,139	425	173	375	-261	382
여행	272	268	403	70	144	1,353	1,320	1,378	450	284	1,081	1,052	975	380	140
건설	421	79	97	167	217	121	56	82	103	103	-300	-23	-15	-64	-114
보험 및 연금 서비스	107	122	200	185	179	-101	83	163	248	146	-208	-39	-37	62	-33
금융 서비스	106	83	79	102	134	202	214	246	244	250	96	131	166	142	115
지적재산권 사용료	465	482	593	462	502	2,574	2,495	2,443	2,158	1,930	2,109	2,012	1,851	1,696	1,429
통신,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204	544	735	251	254	904	1,754	2,182	2,352	2,352	700	1,210	1,448	2,101	2,099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2,821	2,485	2,642	2,130	2,200	2,546	2,737	2,858	2,553	2,689	-274	252	216	424	489
개인적 문화 및 오락 서비스	9	58	13	20	20	113	180	144	127	142	104	122	131	107	122
정부 재화 및 서비스	13	15	16	14	13	19	20	26	24	23	6	5	10	10	9
기타 서비스	15	6	9	11	16	478	382	671	580	720	464	375	662	569	704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 (2023년 2월 9일 최신 자료 기준)

2021년 EU 회원국 가운데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는 독일로, 전체 한-EU 양자 서비스 무역에서 29.3%를 차지했다(EU 전체 수출의 21.7%, 전체 수입의 42.2%에 해당). 아일랜드(EU 전체 수출의 21.0%, 전체 수입의 2.8%에 해당), 프랑스(EU 전체 수출의 15.0%, 전체 수입의 8.5%에 해당), 네덜란드(EU 전체 수출의 8.5%, 전체 수입의 7.5%에 해당), 그리고 덴마크(EU 전체 수출의 9.0%, 전체 수입의 4.4%에 해당)가 그 뒤를 따랐다.

2017-2021 EU 회원국별 한국과의 서비스 무역 (단위: 1백만 유로)

서비스	수입					수출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Total	7,027	7,020	7,650	6,516	7,963	11,320	12,421	13,652	11,823	13,398
오스트리아	77	93	81	75	85	131	171	207	143	118
벨기에	122	151	139	177	378	263	238	292	250	233
불가리아	4	3	2	2	2	11	11	11	6	7
크로아티아	5	6	6	3	7	45	43	47	9	11
키프로스	6	6	7	4	4	6	6	4	5	5
체코	387	372	371	361	334	149	159	166	72	54
독일		2,390			3,359		2,837			2,909
덴마크	290	346	318	322	348	681	721	808	736	1,200
에스토니아	4	6	6	7	10	23	20	14	4	10
그리스	39	46	68	59	53	242	272	267	217	413
스페인			199	119	140	604	604	606	268	191
핀란드	75	87	82	62	79	913	857	1,136	636	758
프랑스	1,261	812	874	729	676	1,572	1,787	2,023	1,622	2,004
헝가리	136	108	117	116	171	337	282	176	151	143
아일랜드	115	140	219	224	225	911	1,797	2,164	2,742	2,815
이탈리아	171	229	203	234	275	238	242	298	197	210
리투아니아	2	3	3	4	3	25	2	4	2	5
룩셈부르크	24	20	56	44	41	162	178	228	215	258
라트비아	9	9	9	7	10	2	1	2	1	1
몰타	3	3			3		11			5
네덜란드	899	1,187	1,401	668	593	1,183	1,163	1,155	1,261	1,135
폴란드	92	116	163	197	273	274	317	327	240	297
포르투갈	65	77	78	58	106	51	59	76	29	15
루마니아	22	11	17	15	23	15	19	21	22	30
스웨덴	150	140	173	161	311	524	508	588	531	485
슬로베니아	7	8	7	7	10	85	84	79	56	64
슬로바키아	406	437	438	368		34	31	33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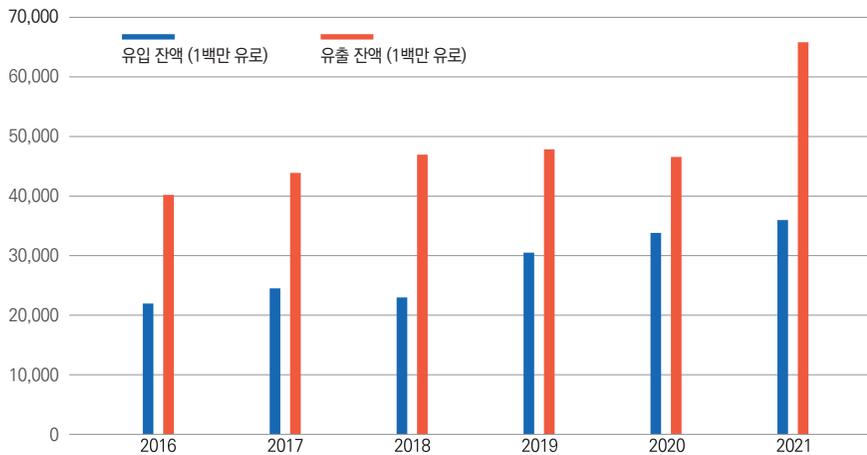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 (기밀조항으로 인해 회원국별 총 무역규모와 EU 총규모가 동일하지 않음)

3. 한-EU 외국인직접투자(FDI)

EU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총잔액 기준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EU는 한국 FDI 전체 잔액의 26.7%를 차지하며, 일본(22.4%)과 미국(14.6%)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참고로 중국은 6.0% 차지)¹¹⁾.

2021년 EU의 對한국 FDI 잔액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660억 유로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對EU FDI 잔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해 360억 유로에 달했다. 최근 몇 년간 눈에 띄는 추세는 EU의 對한국 FDI 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對EU FDI 금액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6-2021 한-EU FDI 잔액 (단위: 1백만 유로)



2016-2021 한-EU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1백만 유로)

연도	1백만 유로				전년대비 성장률 (%)			
	잔액		금액		잔액		금액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2016	22,086	40,280	1,388	2,406	3%	12%	-45%	180%
2017	24,582	44,017	1,760	-	11%	9%	27%	-
2018	23,106	47,088	2,711	2,139	-6%	7%	54%	-
2019	30,646	48,001	5,624	-6081	33%	2%	107%	-384%
2020	33,904	46,647	3,771	-40	11%	-3%	-33%	99%
2021	36,036	65,923	2,211	-3,266	6%	41%	-41%	-8065%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

11) 출처: 한국은행(잠정치)

2021년 EU 회원국 가운데 네덜란드가 EU의 對한국 FDI 총잔액의 28.9%를 차지하며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독일(14.7%)과 프랑스(7.7%)가 그 뒤를 이었다. 네덜란드의 대규모 FDI 유입은 유럽의 많은 금융 투자가 네덜란드에 등록된 기업들을 통해 이뤄지며, 네덜란드의 기업 세제가 투자에 유리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2021년 한국의 對EU FDI 투자국 순위에서도 네덜란드는 1위(전체 FDI 잔액의 15.9%)를 차지했으며, 이어 헝가리(13.4%), 폴란드(11.2%), 체코(10.7%), 그리고 슬로바키아(9.9%) 순이었다.

2020-2021 EU 회원국별 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1백만 유로)

EU 27개 회원국	FDI 잔액 유출		FDI 잔액 유입		FDI 유출 금액		FDI 유입 금액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EU 27개 회원국	46,647.4	65,923.4	33,903.8	36,035.6	-39.9	-3,265.7	3,771.4	2,210.6
오스트리아	:	:	:	:	:	:	:	:
벨기에	783.0	:	1,646.0	1,453.0	-60.0	:	:	-232.0
불가리아	3.1	3.1	68.9	72.1	0.0	0.0	-18.5	2.5
크로아티아	0.0	0.0	13.5	0.0	0.0	0.0	1.9	-0.4
키프로스	0.5	0.9	11.2	11.5	:	:	5.0	0.3
체코	:	1.8	3,311.3	3,838.3	:	:	86.7	272.2
덴마크	350.4	467.6	4.6	6.9	5.2	67.6	-2.7	1.5
에스토니아	10.3	10.7	1.7	2.1	:	:	1.4	0.3
핀란드	230.0	191.0	5.0	:	-222.0	-91.0	:	:
프랑스	3,896.0	5,068.0	1,279.0	1,802.0	10.0	96.0	-118.0	597.0
독일	9,801.0	9,720.0	:	:	676.0	72.0	807.0	-265.0
그리스	0.1	0.0	15.9	16.3	0.9	1.1	0.5	1.0
헝가리	2,155.5	:	3,706.5	4,825.3	-233.0	-455.5	837.1	1,120.2
아일랜드	611.0	1,087.0	104.0	98.0	-229.0	:	102.0	5.0
이탈리아	1,780.0	1,720.9	974.2	850.2	123.5	-19.3	313.3	-168.2
라트비아	:	1.0	23.0	8.0	:	0.0	:	-15.0
리투아니아	:	:	0.2	-1.2	:	:	-0.3	-1.2
룩셈부르크	3,069.0	4,745.0	790.0	601.0	-330.0	-285.0	137.0	-213.0
몰타	:	0.0	:	:	:	0.0	:	:
네덜란드	20,144.0	19,047.0	6,813.0	5,746.0	338.0	-1,660.0	942.0	-127.0
폴란드	-18.0	-29.8	3,269.1	4,022.9	-7.0	-2.0	232.5	811.8
포르투갈	-4.4	-4.3	190.6	247.7	-1.1	0.1	16.6	57.0
루마니아	:	:	48.3	69.1	:	:	:	4.7
슬로바키아	:	0.0	3,204.5	3,580.7	:	:	181.9	319.2
슬로베니아	8.3	9.7	4.1	2.1	5.2	1.4	-1.7	-2.0
스페인	622.0	612.0	1,289.0	1,250.0	-48.0	-8.0	84.0	-42.0
스웨덴	2,087.6	1,548.0	:	391.6	-64.5	-130.1	22.4	34.8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epublic of Korea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11층 04637
Tel (82-2) 3704-1700 Fax (82-2) 735-1211
http://eeas.europa.eu/delegations/south_korea